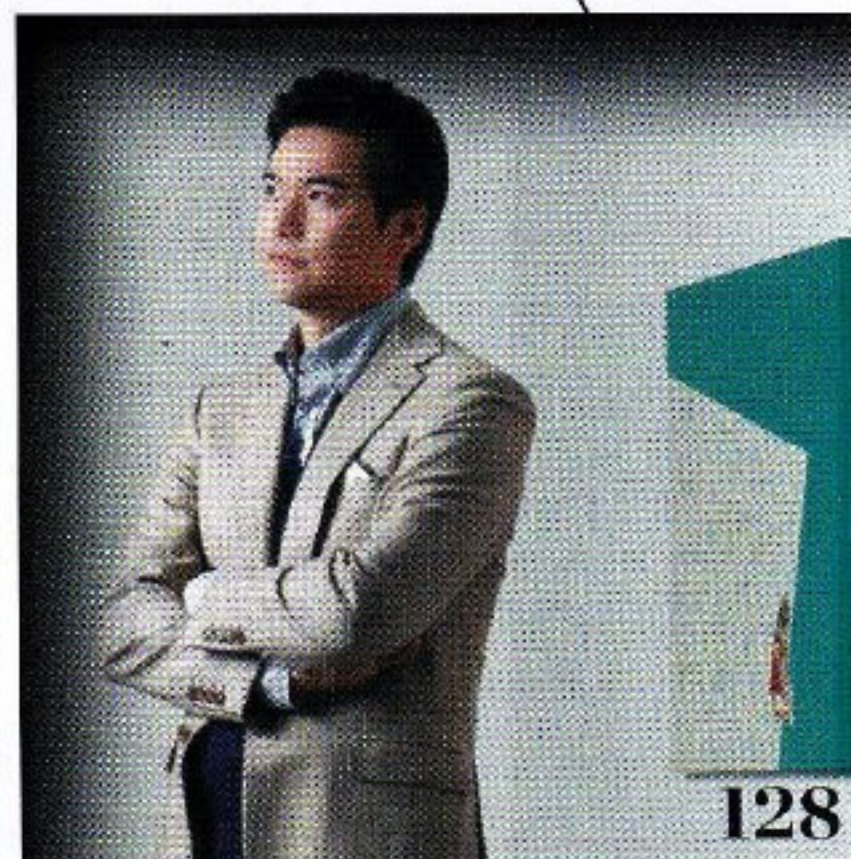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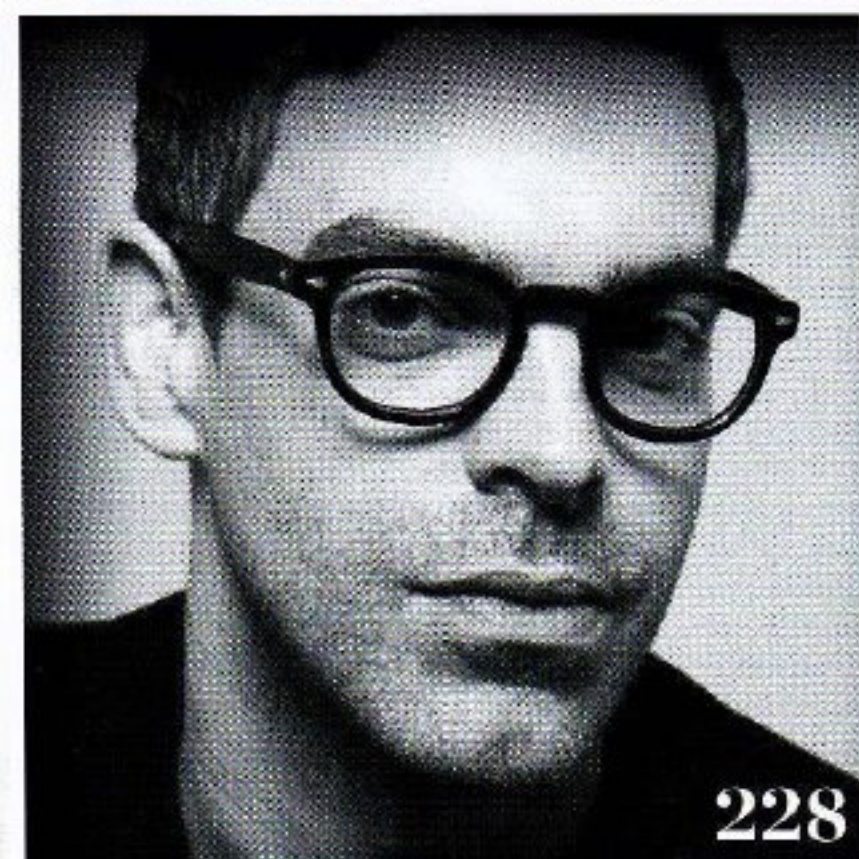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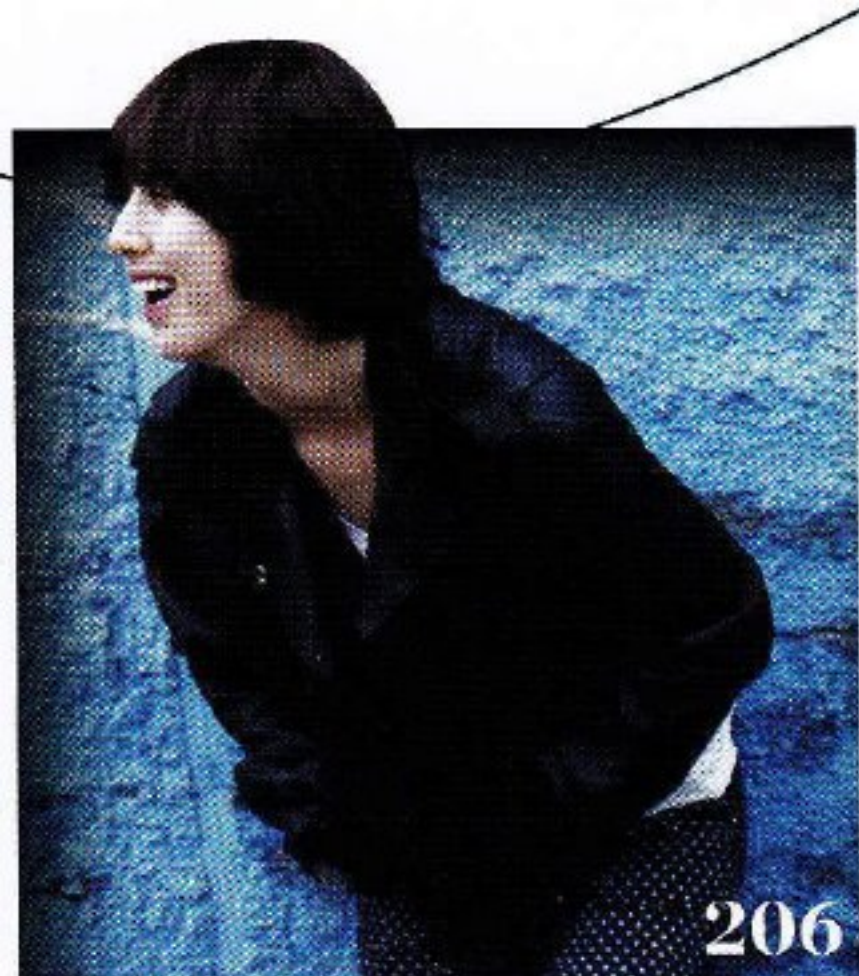




감처럼 분출하고 폭
침지 않은 미션 수행
인을 찾았고, 그는 꼭
했다. 지난해 디아지
한번 월드 클래스 챔
수를 보낸다.

디처럼 명랑하다. 촬
지 덕에 이번 호 특
아칠 수 있었다. 명사
감아낼 줄 아는 센스
관 “네” 하며 웃어보
해지는 듯.

터의 아이디어를 더
와의 첫 작업이었던
증명해냈다. 런던에
화유산과 모던함을
디에 최적의 장소를
을 보여주었으니, 2
최고라 꼽고 싶다.

146 제니하우스 홍보팀 서유리 팀장 패션 하우스의 VIP와 함께하는 화보 촬영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제니하우스의 서유리 팀장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작업을 통해 그 불타는 열정을 경험했으니,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것! 밤낮 없는 카톡과 수십 번의 시안 회의로 완성된 2월호 ‘Dear, my Vip’ 칼럼에서 그 환상적인 솜씨를 확인해보시라.

228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임스 베이머 타마라 드 렘피카, 아르누보, 1930년대를 구현하고 싶다는 메일 한 장을 들고 뉴욕에 도착했다. 촬영 전날, 논문을 써도 좋을 만큼 시안을 촘촘히 준비한 나스 글로벌 아티스트리 디렉터 제임스 베이머가 등장했을 때의 감동이란! 제임스, 한국을 방문할 때 선물하기로 한 ‘그것’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128 유중재단 이사장 & 유중아트센터 대표 정승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가히 전쟁이었다. 키즈 모델들과 함께 하는 촬영을 위해 품격 있는 갤러리를 전쟁터(?)로 내어준 유중아트센터 측과 정승우 대표야말로 이번 화보의 진정한 컨트리뷰터! 갤러리를 비롯해 뮤직홀과 창작 스튜디오, 카페 드 유중으로 구성된 이 훌륭한 복합예술공간(방배동 위치)이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의 허브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